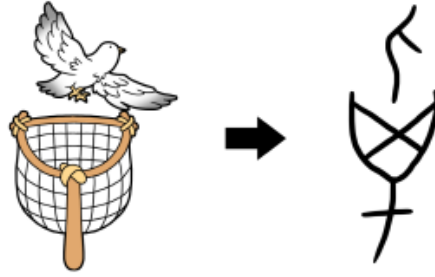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卓

높을 탁

卓자는 '높다'나 '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卓자는 卜(점 복)자와 卓(아침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卓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물 위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卓자가 '높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 이것은 새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새가 그물밖에 그려져 있다. 새가 높은 곳에 있어서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금의 卓자는 이러한 형태가 변형된 것이니 글자의 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 卓자는 새가 하늘 높이 있다는 의미에서 '높다'나 '멀다', '높이세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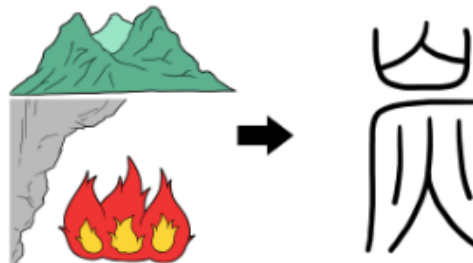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炭

숯 탄:

炭자는 '숯'이나 '목탄', '석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炭자는 山(되 산)자와 厂(기슭 엄)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숯은 높은 온도에서 나무가 타면서 수분과 불순물만 연소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인류가 처음 접했던 숯은 산불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니 炭자는 나무가 있는 산(山)과 기슭(厂), 그리고 불(火)을 결합해 숯이 처음 만들어졌던 장소를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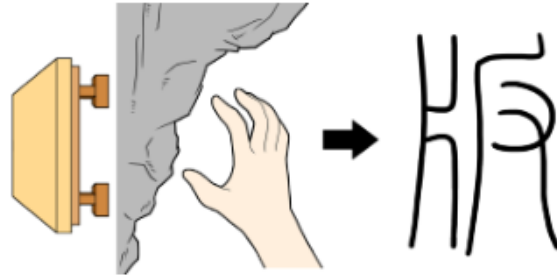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板

널 판

板자는 '널빤지'나 '판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板자는 木(나무 목)자와 反(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反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반→판'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片(조각 편)자가 들어간 版(널 판)자가 '널빤지'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木자가 들어간 板자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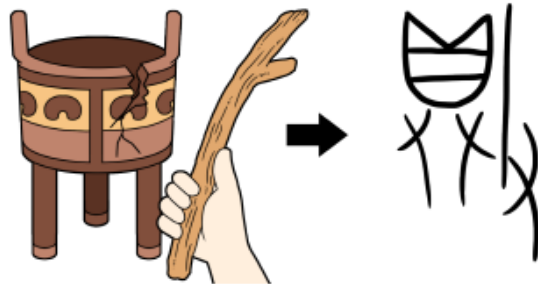
版

소전

板

해서

회의문자①



敗

패할 패:

敗자는 '깨뜨리다'나 '패하다', '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敗자는 貝(조개 패)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敗자의 갑골문을 보면 貝자가 아닌 鼎(술 정)자가 𠂔(칠 복)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술은 매우 신성시됐다. 그런 술을 그린 鼎자에 攴(칠 복)이 더해진 것은 신성한 술을 깨부수었다는 뜻이다. 신성한 술이 깨졌다는 것은 적에게 패배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敗자는 '패하다'나 '깨뜨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鼎자가 貝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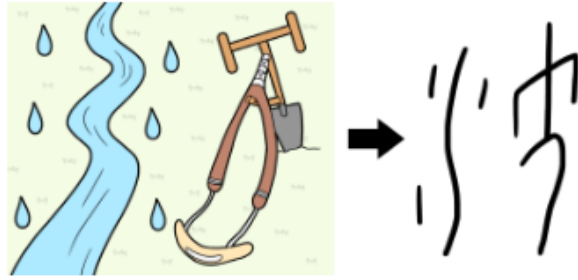
𠂔

소전

敗

해서

회의문자①



河

물 하

河자는 '물'이나 '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河자는 水(물 수)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河자는 본래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황하(黃河)를 일컫던 말이었다. 황투고원에서 시작되는 황하는 상류에서 흘러오는 퇴적물이 많아 정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나던 강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대부터 황하 일대에서는 독을 쌓아 범람하던 황하를 다스렸었다. 그래서인지 갑골문에 나온 河자는 水자와 方(모 방)자가 𣎵 결합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가래로 독을 쌓는다는 의미이다. 후에 方자가 可자로 바뀌긴 했지만, 본래는 치수의 개념이 반영된 글자였다.

𣎵

갑골문

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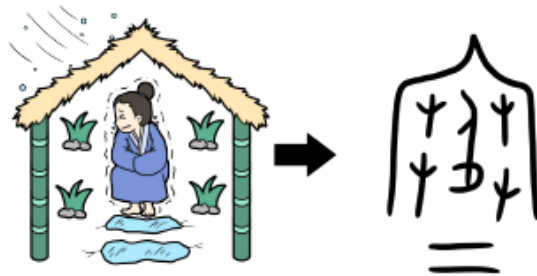
𣎵

소전

河

해서

회의문자①



寒

춥 한

寒자는 '차다'나 '춥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寒자의 금문을 보면 宀자와 𠂔자, 人(사람 인)자, 冫(얼음 빙)자가 𣎵 그려져 있었다. 특히 사람의 발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얼음이 있다. 발아래에 얼음을 그린 것은 집안이 매우 춥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불도 없이 풀(𠂔)을 깔고 있으니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해서에서는 모습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寒자는 이렇게 변변한 이불도 없이 차가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차다'나 '춥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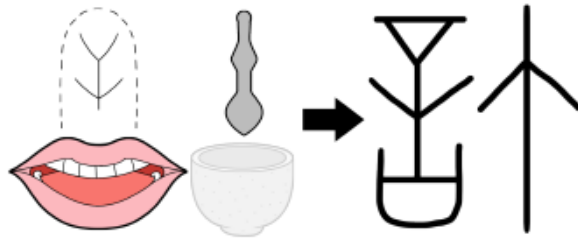
𣎵

소전

寒

해서

형성문자①



許

허락할
허

許자는 '허락하다'나 '승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許자는 言(말씀 언)자와 午(낮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午자는 '낮'이라는 뜻이 있지만 '절굿공이'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절굿공이'를 그린 午자에 言자가 결합한 許자는 본래 절굿공이를 내려치며 내는 소리인 '이영차'라는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고대에는 許자가 의성어로 쓰였었지만, 후에 '허락하다'나 '승낙하다', '나아가다', '바라다', '정도'와 같이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다.

許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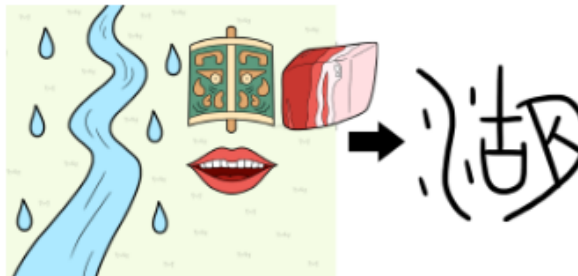
許

소전

許

해서

형성문자①



湖

호수 호

湖자는 '호수'나 '큰 못'을 뜻하는 글자이다. 湖자는 水(물 수)자와 胡(턱 밑살 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胡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호수는 물이 넓게 괴어 있는 곳을 말한다. 중국에는 이런 호수가 24,800여 개나 있다. 홍콩의 면적 크기인 1,000km² 이상 큰 호수만 해도 13개나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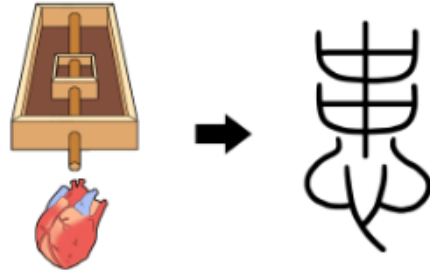
湖

소전

湖

해서

회의문자①



患

근심 환:

환자는 '근심'이나 '걱정',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환자는 串(쥬 관)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串자는 사물을 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물건을 관통하는 모습을 그린 串자에 心자가 결합한 환자는 고행이가 심장까지 관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근심은 마음을 짓누르는 병이다. 병이 들거나 근심 걱정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니 이렇게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환자는 '근심'이나 '질병'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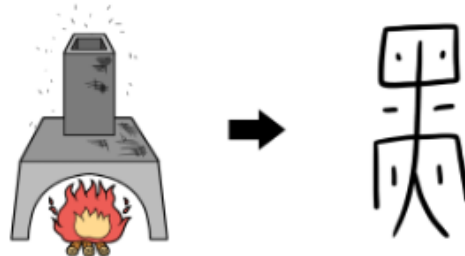
患

소전

患

해서

상형문자①



黑

검을 흑

흑자는 '검다'나 '꺼멧게 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흑자는 아궁이를 그린 것이다. 흑자의 금문을 보면 火(불 화)자 위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 𠂇 그려져 있었다. 불을 지피는 용도인 아궁이는 주위가 꺼멧게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흑자는 '검다'나 '꺼멧게 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白(흰 백)자가 순수함을 상징한다면 흑자는 그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흑자는 '검다'라는 뜻 외에도 '나쁘다'나 '악독하다', '횡령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黑

금문

黑

소전

黑

해서